한국타이어, 티탄칼슘섬유 사용 마찰재 개발

한국타이어는 자회사인 한타M&B가 계열 레이싱팀인 벤투스와 공동으로 브레이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초고성능 레이싱용 마찰재를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1월27일 밝혔다.

개발한 레이싱용 마찰재는 기존 제품의 평균 마찰계수가 350도 이상에서 0.3이하인데 비해 동일온도에서 0.4이상의 평균마찰계수를 유지하면서 높은 제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전문 레이서와 기술자 등을 통해 신제품에 대한 실차테스트를 400여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시해 제동시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우수한 제동력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신개발 마찰재는 제동시 마모분진에 의한 휠 오염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해 아라미드 파이버, 티탄산칼륨 섬유 등 첨단소재를 사용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스피드 및 제동성능을 향상시킨 튜닝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로 레이싱 시장에서도 자사의 기술력을 입증받고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28>